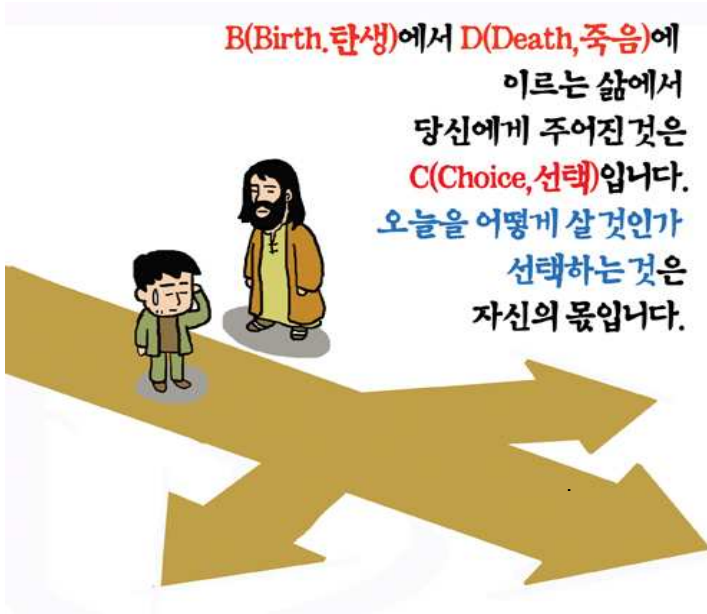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B(Birth, 탄생)에서 D(Death, 죽음)에 이르는 삶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C(Choice, 선택)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 [제 1독서] 이사49, 14-15  
[화답송] 시편62(61), 2-3, 6-7, 8-9, 11 (◎6-참조)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 내 영혼 그분을 고요히 기다리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 내 영혼아, 그분을 고요히 기다려라.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 내 구원,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 내 든든한 바위, 내 피신처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제 2독서] 1코린4, 1-5  
[복음 환호송] 히브4, 12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복음] 마태6, 24-34

성가	8시 미사	입당 49	봉헌 213 512	성체 169 175	파견 4
	11시 미사	입당 49	봉헌 213 512	성체 169 175	파견 4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8주일(3월 2일)		사순 제1주일(3월 9일)		사순 제2주일(3월 16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임루카(승원)	조레지나(선덕)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최분도(환준)	이레이몬드(창용)	김안드레아(찬곤)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최분다(수영)	이베로니카(경란)	김글라라(순희)	서테레사(춘애)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모든 걱정은 하느님께

“은총과 고통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은총을 얻고자 한다면 고통 또한 수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즐겨 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걱정 인형(Worry doll)’이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거나 아예 세트로 제작된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걱정 인형’은 과거 마야문명을 잇는 과테말라 인디언들의 민간 풍속이라고 합니다. 작고 화려한 이 인형은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자신의 걱정을 이 인형에게 이야기하고, 인형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자는 동안 걱정이 대신 걱정을 해주니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마야문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열대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우던 문명이 홀연히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 그 자체인 고대 마야문명은 신비로움이 더해져서 “우주인이 만들었다가 홀연히 사라진 것”이라거나 “솔로몬의 후예들이 세웠다”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현대 상술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되면 상품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품화한 인형이 “귀여운데다가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무한한 신뢰가 생길 만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걱정 대부분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12%는 자신과 관계없이 남에 관한 걱정이고, 10%는 상상이고, 나머지 8%만이 진짜 걱정할 문제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걱정은 하느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걱정하며 찾으시는 것이 하느님의 공정입니다. ‘걱정 인형’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파도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마태 14, 22-33, 마르 6, 45-52, 요한 6, 16-21).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제자의 호소를 주님은 들어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어둠과 혼돈의 상황에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걱정 인형’ 보다는 저녁기도를 하고 ‘목주’를 곁에 두고 자는 것이 더 많이 좋으니 걱정 많은 분들은 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호 루카 신부/ 인천교구 가톨릭음악원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필요(NEED)와 욕심(GREED)

우리 성당 근처에 소위 ‘로또 명당’ 이라 소문난 판매소가 있습니다. 1등 당첨이 무려 20번이나 되었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로또를 사러 오기도 하고, 우편으로 부쳐 주기도 한답니다.

저도 한두 번 해보았습니다. 당첨되면 성전건립기금으로 내겠다는 허풍을 떨면서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행성 산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한방에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심리가 살기 어려울 때일수록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애초부터 조작해 놓은 기계를 상대로 한방 터뜨려보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로또 가게 앞에 긴 줄을 서고, 도박판을 전전하며 더 깊이 빠져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 6,24 참조)

오늘 복음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해 봅니다. 돈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나 돈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일 뿐이라며, 조소거리로 취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한술 더 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태 6,33-34)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 교수는 후속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에서, 아무리 시장지상주의시대라 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에 앞서 ‘과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선행될 때, 비로소 우정이나 인격, 도덕적 가치, 친밀감 등 인간관계에 있어 소중한 가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먹고 사는 일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잘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시며 재물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대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필요(NEED)한 만큼이 아니라, 탐나는 만큼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GREED)을 강하게 질타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

니다.

실상 ‘필요(NEED)’와 ‘욕심(GREED)’은 글자 한 자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어리석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한편으로 기쁨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그것은 점점 우상이 됩니다.

이는 곧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총의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원석 신부  
노원성당 주임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글\_시편 51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우상이냐, 하느님이냐?

일하는 책상은 작가실에 두고, 제작부서 정규직 소속이었던 방송국 생활 초기에, 저는 부서 책임자와의 관계가 부드럽지 못한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는 긴급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밤늦도록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대책을 세워야 했고, 모임의 결과가 방송 송출(送出)에 직접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상적으로 맡고 있던 정규 프로그램이 문제였고,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밤을 지새워가며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제시간에 정확하게 방송 대본을 책임자 앞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고, 그 다음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던 부서장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신뢰를 얻게 된 후로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프리랜서로 나설 때까지 그분과 일하기에 수월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일상의 어려운 일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명절 때 아무리 일이 고달프고 피곤하더라도 만나는 일가친척, 가족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나면 피곤이 쉽게 풀리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을 코앞에 둔 오늘 주일독서에서 근심에 쌓여있는 백성에게 하느님의 크고 큰사랑이 그들 시온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관리인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니고 그분께 충실한 종,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이 되어 한다고 일러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를 물으신 다음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친절하고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됃됨이를 알아보려면 시간이 날 때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인지,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자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가치와 대면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신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글 한 줄을 쓰더라도 ‘훈이 담긴 작품’을 쓰고 싶고, ‘하느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돈이나 명예,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닌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는 것이, 그 말씀의 이삭 하나라도 건지고 살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를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방송작가  
전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목자의 소리

신앙은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발걸음에 종군 함께 합니다.  
따라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첫째 구약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는 이들이 선택했던 길,  
그들이 밟았던 길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빛」 8항

## 가톨릭전례

#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

- 너의 하느님은 나 주님이다. 바로 내가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탈출 #20:2~5)

가톨릭 기도의서의 십계명에는 첫째 계명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반면에 탈출기의 첫째 계명은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기도의서]의 십계명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하여라), 탈출기의 십계명에서는 부정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탈출기의 본문에 따라서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2가지 잘못된 신앙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첫째 계명은 다신교를 단죄한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던 시절에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은 모두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다신교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대부분은 노골적으로 하느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찾아 나서지는 않지만, **게 중에는 성당도 다니면서 점점도 들락날락 하는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 계명 위반 행위는 단지 다른 종교들을 기웃거리는 것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 위반의 본질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 쾌락, 인종, 조상,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고 공경한다면 이는 첫째 계명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태 #6:2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첫째 계명 위반 행위는 무신론(또는 종교적 무관심)입니다.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느님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는 모습입니다.

###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하느님 이외의 다른 신이나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첫째 계명의 위반이지만, **하느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 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탈출기의 십계명에서는 이것을 “야훼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될까요? 하느님은 본질상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조차도 형상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 그 초상화가 그 사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은 그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몇 번 만난 후에,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방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방은 올바른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안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관계도 하느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규정지어 버릴 때 왜곡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하느님을 형상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되고, 대신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모님, 성인성녀들의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십계명의 형상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리스도교의 성화상 공경은 우상을 금지하는 첫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성화에 대한 공경은 그 본래의 대상에게 소급되며” “성화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성화에 그려진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화에 표하는 공경은 존경을 표하는 공경이지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흠송이 아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32항).** -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3월 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전데레사(정희)	이베로니카
	연	정마리아(연희)	채줄리아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준기	이시몬/울리엠타
	연	박준기	이베로니카
	연	이종호	임주원
	연	강정숙	황데레사(혜정)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엘리사벳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유데레사	가족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생	김영호	조데레사
	생	정안드레아(일양)	이요셉
	생	조마오로수녀님	김데레사
3월 4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3월 6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생	이정우	전수산나
3월 7일 금	연	메철투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3월 8일 토	연	이요한	이막달레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6	237	51	374
헌 금	\$587	\$1,438	\$85	\$2,110

< 교무금 > \$4,220

유춘성(2) 유경돈(2) 구태영(2) 이정연(3)  
 고연석(1) 신기수(3-4) 김민규(1-2) 이경섭(2)  
 홍흥기(1-2) 신우현(1-2) 구창희(3) 윤순의(1-2)  
 한재구(1-3) 황현숙(1-2) 조진행(2-3) 박찬길(3)  
 조승구(3) 이건용(3) 김원조(1-6) 김영희(3)  
 박호영(3) 이욱경(1-2) 김영자(1-2) 허은석(1-2)

< 성소후원금 > \$80

고연석(1) 홍흥기(1-2) 박찬길(3) 박호영(3)  
 허은석(1-2)

< Bishop's Appeal >

홍흥기(1-2)

< 감사헌금 > 조승구 \$100

< 2차 헌금 > \$757

~~~~ 오늘 간식은 김관숙 크리스티나/김미라 수산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 여행자를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 성시간 : 3월 6일(목) 7시 30분
- ◆ 지속적인 성체 조배  
3월 7일(금) 저녁 9시부터 3월 8일(토) 아침 7시까지
- ◆ 2차 현금 안내  
3월 9일(다음 주) : Catholic Relief Services
- ◆ 재의 수요일 미사  
\* 3월 5일(수) 저녁 7시 30분  
\* 금육과 단식을 지켜야 합니다.  
\*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성당입구에서 Rice Bowl 을 가져가십시오.
-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 십자가의 길 주송자 신청  
주일 아침/교중 미사 전 십자가의 길 주송하실 분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 : 전례부장/차장 또는 사무실
-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 부활봉성체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 오바마케어(의료개혁법) 상담  
3월 2일(오늘) 미사 후 친교실
- ◆ 다음 주일인 3월 9일에는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  
입니다. 미사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요셉회 : 3월 2일(오늘) 12시 반 107호실  
\* 구역장회의 : 3월 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평협회의 : 3월 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하상회 : 3월 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장소추후공지)  
\* 서예교실 : 3월 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203호실  
\* 독서클럽 : 3월 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3호실

- ◆ 요아킴회 : 3월 2일(오늘)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정기총회 겸 본당신부님 환영 모임
- ◆ 청소년기금 마련 골프대회 준비회의(관련 부서장들)  
3월 2일(오늘) 교중미사 후 203호실
- ◆ 사진동호회 모임  
3월 2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기초 사진 강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문의 : 임승주 안젤라 510-396-3234
- ◆ 영상으로 하는 사순피정  
일시 : 3월 16일(주일) 오후 1시 - 5시 30분  
참가비 : 무료(전신자 점심 제공)  
\* 피정 후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9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Presentation Center (프레젠테이션 센터)  
19480 Bear Creek Rd. Los Gatos,  
주제 : 일치의 여정  
강사 : 한승주 스테파노 산호세 성당신부님  
최동원 베드로 교육부장  
참가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 봉사자 및 기도회원과  
관심있는 교우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신청 및 문의 : 각 본당 성령기도회
- ◆ 주일학교 교감선생님을 모십니다.  
2014년 가을학기부터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 : sjbaek@gmail.com 백승진 미카엘
- ◆ 크레딧유니온 프로모션 안내  
\$50,000 이상의 CD를 181~365일간 맡기실 경우  
이자가 신규회원 : 0.95% -> 1.10%  
기존회원 : 0.95% -> 1% 로 인상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3월 8일 : 교내 '나의 꿈 말하기대회'  
- 3월 15일 : 한국어 SAT(II) 모의고사  
- 4월 5일 : 양로원 방문(Diamond Care)